

“좌절 인생에 희망 심는다”

노숙자 돌보는 서울시청 불심회 조정봉 법사



◇지난 13일 새벽 서울역 지하도에서 추위에 떨고있는 노숙자에게 조정봉씨가 희망의 집 입소를 권유하고 있다.

서울역등 노숙자 찾아 희망의 집 입소 권유

지난 87년 서울시청 불심회를 창립하고, 22개 구청 불심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했던 조정봉씨(53). 서울시청 불심회 상임지도 법사이기도 한 그가 요즘 주위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조씨의 주된 업무는 서울시 노숙자 대책을 전담하는 일. 지난 3년간 서울시청 노숙자 대책반에 근무하며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는 조씨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노숙자가 늘고 있어 더욱 바빠졌다.

97년 IMF위기로 처음 생긴 이색 부서인 노숙자 대책반. 98년 초 노른자위 부서인 감사실에서 근무하던 그가 노숙자 대책반이 꾸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자청했다. 그는 이곳에서 서울시에 있는 106개 희망의 집을 관리, 지원하며 새벽에는 서울역, 영등포역 지하도 등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희망의 집에 입소할 것을 권유하고 노숙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정신이 없다. 그래서 그는 아예 출퇴근도 포기해 버렸다.

그가 이곳에 자청한 이유는 불교적 삶을 실천하고 싶어서다. 그가 불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80년 가정의 우환과 공직사회의 사정태풍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냈던 시절이다.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서점주인이 권해준 <불교대전>을 읽

고 난 후 '바로 이거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팔정도 사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환희심을 느껴 지금도 인생의 철학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팔정도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며 살고 싶어 남들이 꺼려하는 노숙자 대책반에 자원한 것이다.

“어느날 새벽 출근길 서울시청 지하도에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자는 노숙자들을 보았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시절 저 자신도 불행을 겪었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기에 앞으로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배울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면 노숙자 대책반은 유난히도 바쁘다. 그러나 조씨는 이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불심회원들과 매일 한차례의 사찰순례와 수련대회, 수계법회를 병행하며 열심히 불행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포교사단 직장포교팀인 심원회 회장을 맡으며 직장직 불자회와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불심회 행사가 단 한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조씨는 “바쁘게 살다보니 번거로움이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직장법회의 창립, 후원 등 직장포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불교계에서도 노숙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환자에 안락’ 약사보살 다짐

국립의료원 법당개원 11돌법회

국립의료원 법우회(회장 황영희)는 지난 8일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9층 강당에서 법당개원 11주년 기념법회 및 송년법회를 병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보광사 효림,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혜, 봉은사 포교국장 제안스님, 동국대 석림회 학인스님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법우회 민병훈 회장, 보건복지부 불교진흥회 이영휘 회장, 한일병원 반하회 이영숙 회장,

김사연 안홍부 총무 등 환자 및 법우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황영희 회장은 “89년 법당을 개원하고, 90년 법우회를 결성한 이래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돈독한 불심으로 황무지를 옥담으로 일구어 낸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약사보살의 화신으로 아픈 이웃들의 병고를 치유하고 건강을 얻게 하는 본래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국립의료원 법당 개원 11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8일 간호대학 9층 강당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행했다.

우리모임에선

행자부·과천청사 송년법회

행자자치부 불자회(회장 하재춘)는 9일 금천사에서 송년법회를 병행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는 법인 스님이 설법했다.

또한 과천정부청사내 농림부, 법무부, 공정거래위,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불자들은 14일 보광사에서 송년법회를 가졌다. 조계사 포교국장 무각스님이 법문한 이날 법회에서는 50여명의 공무원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다졌다.

석불선양회 통일법회

한국석불선양회는 10일 민통선내 철원평야 철새도래지에서 평화통일 기원

법회를 병행하고 겨울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펼쳤다.

70여명의 회원들은 법회를 병행한 후 6시간 호국 청인사를 방문해 초코파이, 단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피안사, 심원사를 참배했다.

넷츠고 소년가장 돕기

PC통신 넷츠고 불교동호회(지도법사 도홍)는 23일 저녁 6시 천안 상명대학교 앞 레스토랑 ‘두번째 선택’에서 천안지역 소년소녀 가장 10여명을 초청해 저녁식사와 다과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한길레크레이션에서 준비한 게임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041)555-1919

원우회 유지호회장 재임

조계종 원우회(회장 유지호)는 13일 불교교관 1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들은 현 유지호 회장을 제7대 원우회장으로 재선출했다.

또한 원우기금을 확대해 광림사연회 복지회원과 일곡청소년센터에 매달 일정한액의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사랑연에서 한달에 한번이상 전화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를 모집한다. 사회복지(사업)학과 졸업예정자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등이다. (02)2203-3677

이전

▶주간불교신문사는 15일 마포구 서교동 353-1 서교스카이 타워빌딩 909호로 이전했다. 대표전화는 (02)734-0777 그대로다.



◇지리산살리기팀백지화추진법보교연대가 주도한 지리산살리기운동은 불교환경운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10월23일 태백 황지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도보 순례단(단장 수경스님)의 백지화 장면.

정토세상 만들기 ‘큰걸음’



2000 결산

올 해 불교시민단체들은 ‘달라이라마’, ‘지리산팀’, ‘통일’ 등을 화두로 어느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 불교 NGO 운동사의 이정표를 세웠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바로세우기재단을 주축으로 종교·사회단체 대표가 결합해 구성된 달라이라마방한 준비위원회는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라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타종교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인권·평화운동에 대한 불교적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리산살리기팀백지화추진법보교연대 등 불교단체들은 300여 종교·시민·환경단체가 구성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0돌을 맞은 인권분야 역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장기수후원회는 비전향장기수 북한 송환운동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주도했으며 불교인권위원회는 사형제폐지운동,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운동에 매진했다. 또 좋은 벗들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북한 동포와 탈북 주민의 인권문제를 제기했으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처럼 올해 불교 시민운동은 전반적으로 대사회적인 통일·인권·환경에 대한 관심영역을 확대시키면서 타종교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달라이라마 방한운동과 지리산팀 백지화 운동은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불교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불교 시민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리산 살리기 환경운동 주도 달라이라마 방한위 인권 부각 JTS등 북돋기 통일 원력 눈길

을 통해 전국적인 환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5개 불교단체들은 장경사 인근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 노선을 변경시킨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13개 불교단체가 조계종 등 각 종단에 제기한 사찰의 내부적 환경훼손에 대한 참회와 사찰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은 생명·환경사회의 모태가 되는 불교의 환경의식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좋은벗들 한국JTS 등 통일관련 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하면서 교계에 북한의 정통사찰 복원, 통일교육 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통일정진불교연대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으로 불자들의 통일 원력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한국JTS는 북한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사업을

원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류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 및 의약품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 일부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재와 활동이 부족, 스님과 사찰에 의존한 재정난과 열악한 근무조건, 업무량 폭주 등에 따른 의욕저하 등 만능적인 개선점도 산출해 있다.

불교시민사회기금(통일기금 등) 설치, 불교시민사회교육성위원회 설치, 단체 종사자 교육 및 복지대책, 사찰기금출연 및 지원에 따른 분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안을 조계종 중앙총회에 상정하는 제도적 지원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사랑나누기 하루차집=부산 내원정사는 중앙동 쌍계다실에서 지역내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나누기 하루차집을 개최한다. (051)242-0691

▲어르신 송년잔치=서울시립 성북노년종합복지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어르신 송년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 어르신 작품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37-0698

강좌

▲불교교리=조계종 국정회는 내년 1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교교리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국정회 법당에서 진행되고 법사는 무진장스님이다. (02)730-1249

▲미행사 한문학당=해남 미행사는 내년 1월 3일~10일, 1월

13일~20일 두차례에 걸쳐 초등 학교 4~6학년반을 대상으로 한문 학당을 연다. 참가자들은 사찰에서 숙식을 하며 붓글씨, 한문, 생활예절, 참선과 요가, 다도를 비롯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동 만들기, 연날리기 등의 지도를 받게 된다. (061)533-3521

모집

▲어린이 겨울불교학교 교사=강남포교원은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펼쳐지는 어린이 겨울

불교학교를 진행할 지도교사를 모집한다. (011)237-4478 이주영 ▲금강유원 학인=봉양사 금강유원은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 계를 수지한 학인을 대상으로 200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내년 1월 3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강원 졸업증명서 등이다. (061)256-4127

▲사회복지사=승과재가노인복지센터는 20일까지 사회복지사

모집 제6기 불심호스피스·간병과정

불교복지보건대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불심 호스피스 및 간병봉사 전문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식 및 간병에 대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가족의 건강관리는 물론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내용

- 마음, 만 생명의 근원(마음개방)
- 산모간호와 아기 돌보기
- 기초간호 실습
- 말기 임종환자와의 의사소통
- 음악과 건강
- 한의학 이론과 한방간호
- 생명의 의지와 가치
- 인간의 이해 및 봉사자의 자세
- 물리치료 및 재활요법
- 만성질환과 간호
-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 건강과 질병(노년간호)
-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3회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간호
-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 말기환자간호 및 통증관리
- 호스피스 역사와 철학
- 건강증진법
- 경락 이론 및 맞사지
- 병원간호 및 실습
- 불교호스피스

강사진 스님, 의대·간호학과 교수 및 최고실무 경험자

개강일: 2001년 1월 9일(화요일)
강의시간: 2001년 1월 9일(화)~4월 6일(금)
강의시간: 매주 화·금(오후 2~5시)

대상: 19세이상 ~ 60세까지의 남·녀
수강료: 월 5만원(교재비 포함)
특전: ·수료증 수여·봉사활동 지원·유급활동을 위한 지원 가능

불교복지보건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학장 예도스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3-5 대야빌딩 4층

문의 및 접수
051) 462-567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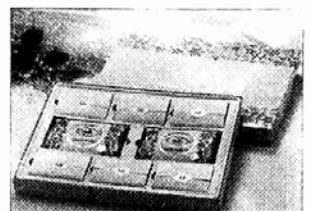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뜰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가 되면 몸이 아파서 기미가 나타나고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든 한약이든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썹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애당되는 증상(0)이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없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배꼽이 건조하고 딱딱하다
- 11 매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성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문은 즉시 전화하십시오.